

# 기획

# ‘대학평가’에 매몰된 대학정책, 경희 고

## 길게 읽기 - 대학평가 10년 돌아보기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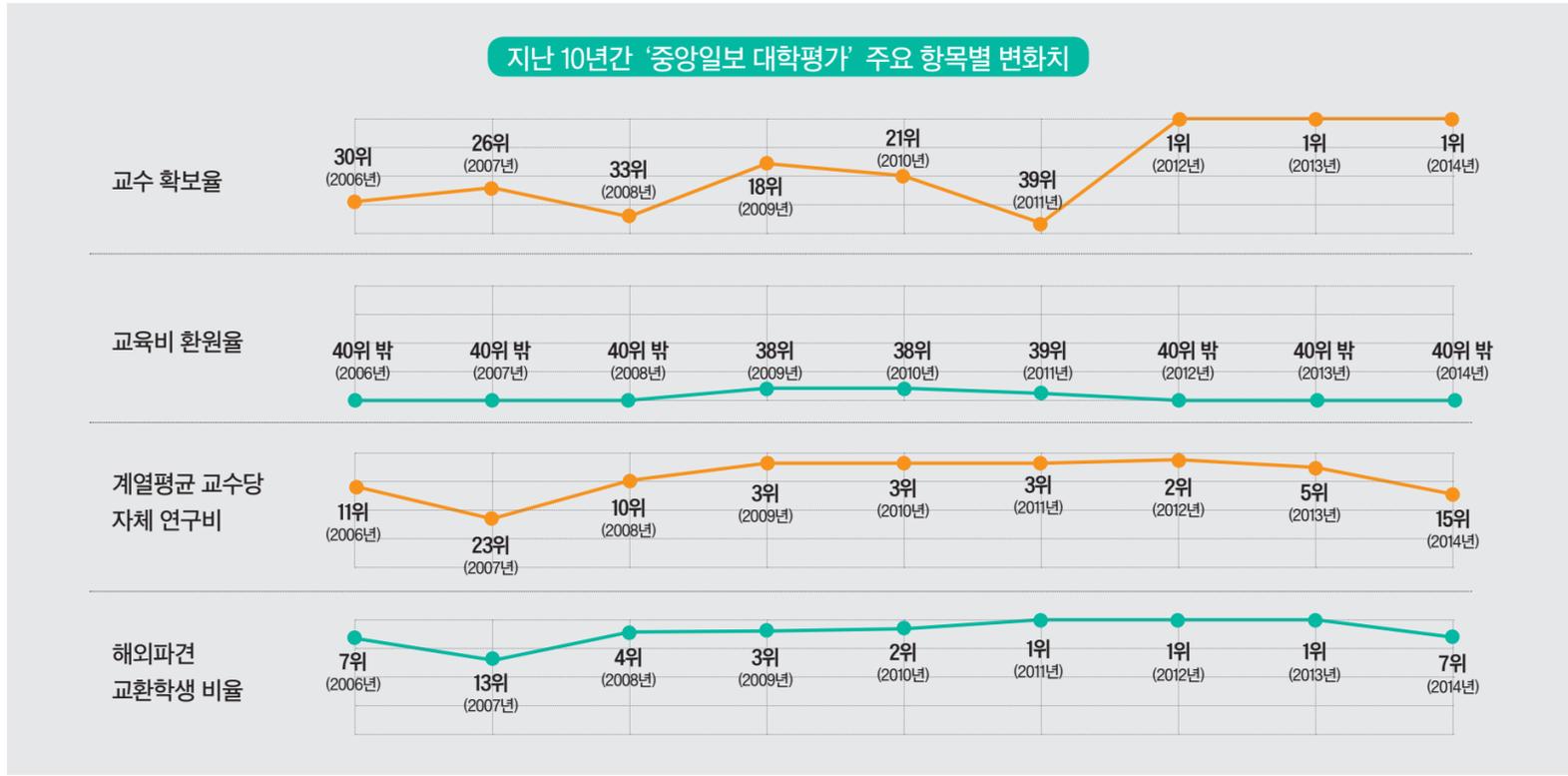
대학평가가 지금과 같은 선정성을 띠게 된 것은 1984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U.S.News & World Report)’가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연례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대학평가에서 유수의 대학들은 정형화된 지표들에 맞춰 줄 세우기를 강요당했고, 대중은 ‘대학을 평가한다’는 이 새로운 개념을 마치 대학 세계의 올림픽쯤으로 여기며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간파한 나름 영향력 있다는 세계의 매체들은 본격적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는 ‘이벤트’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대학평가도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식 접근법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시작됐다. 1994년에 시작한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가목이나 입학 성적 순으로 대학을 줄 세우던 한국 대중의 구미를 충족시키며, 1982년부터 실시되어오던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평가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평가는 비단 대중뿐만 아니라 대학의 마음도 뒤흔들어 놓았다. 초창기에는 ‘대학이 일개 언론에 의해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학평가 결과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던 국내 일부 대학들마저, 대학평가가 해를 거듭하며 기준에 통용되던 ‘대학 서열’을 전복시키는 어떤 경향성을 담아내기 시작하자 시나브로 대학평가 맞춤형 정책들을 쏟아내며 언론사의 장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 대학평가, 초창기의 ‘성과’ 하지만 곧이어 불거진 ‘문제점’

한국 대학사회를 파고든 언론사들의 대학평가가 해외 미디어의 대학평가지표를 중요하게 참고했던 덕분에, 초창기 시절만 하더라도 국내의 대학평가는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국내 대학들에 세계적 기준 지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많은 대학들이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아왔던 ‘교수당 학생 수’나 ‘교육비 환원율’,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등의 지표가 당장의 대학 브랜드 가치



### 대학평가의 줄 세우기에 길들여진 한국 대학은 각 언론사가 지정한 지표들에만 집중하며 매년 오르내리는 대학 평가 순위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비전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전까지 세계기준에 미달했던 각종 지표 값이 세계 대학의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초체력을 기른 후에는 각 대학 간의 변별적인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지향하는 바를 펼쳐내며 저마다의 학풍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의 줄 세우기에 길들여진 한국 대학은 각 언론사가 지정한 지표들에만 집중하며 매년 오르내리는 대학평가 순위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비전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학교의 지난 10년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실 우리학교는 국내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평가’ 전담 부서를 도입할 정도로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대학 중 한 곳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평가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경우해보며 ‘대학평가에 대처해온 우리학교의 지난 10년’을 한 번 되짚어 보자.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된 2006년 이후로, 지난 10년 간 우리학교의 정책은 평가지표에 맞추어 뚜렷하게 변화해오고 있다.

먼저 ‘교육여건 및 재정’ 항목의 ‘교수당

학생 수’와 ‘교수 확보율’은 꾸준히 개선됐다. ‘교수당 학생 수’는 2006년의 31위(27.20명)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16위(22.179명)까지 상승했다. 공격적인 신규교원 임용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교수 확보율’도 2006년의 30위(0.730%)로부터 출발해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100%의 확보율을 보이며 1위에 자리 잡았다.

### 대학평가지표에 발 맞춰 온 지난 10년의 명과 암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부문도 2005년의 21위에서 2014년의 9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우리학교 발전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꾸준히 ‘SCI연구실적 관련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등 ‘연구 성과 중심 정책’을 이어온 덕분이다.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항목의 경우에도 2006년 11위, 2007년 23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까지 5위로 뛰어오르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모든 부문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가령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육비 환원율’,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40위 밖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에게 수혜 되는 교육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 중에서 교수 초빙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교수확보율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임은 분명하지만, 그 한 두 가지 지표에만 올인(all-in)하며 다른 부문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은 결국 학교의 정책 방향성이 종합적인 교육환경을 아우르는 대신 대학평가의 특정지표들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특히 ‘국제화’ 지수가 도입된 2006년 이후로 세부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대학평가에 경도된 우리학교 운영의 골격을 그려볼 수 있다. 우리학교의 ‘국제화’ 지수는 2006년의 9위와 2007년의 16위로 출발한 이후 2011년 1위, 2012년 2위, 2014년 4위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처음으로 ‘국제화’ 지수가 평가지표에 추가된 이후로 우리학교의 영어강의 비율은 2006년 5.427%에서 2014년 20%로 크게 증가했다. 명백히 평가지표를 쫓았던 이 행보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었다. 역지로 영어강의 비율을 늘리거나 부

### 2016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구분	일정	일시
정원내 (내국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5. 10. 12. (월) 10:00 ~ 10. 16. (금) 17:00 까지 ※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5. 11. 07. (토) 10:00
	합격자 발표	2015. 12. 04. (금) 13:00 예정
정원외 (외국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5. 10. 01. (목) ~ 10. 30. (금) 17:00 까지 ※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합격자 발표	2015. 11. 30. (월)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 01. 05. (화) ~ 01. 11. (월)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 2016 전기 국제대학원 장학생 모집

- 모집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뷰(40%), 영어작성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턴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턴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 서류접수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4일(수)  
국내 거주자 인턴뷰 및 영어작성시험 :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 거주자 인턴뷰 : 개별안내
- 입시설명회 : 2015년 10월 26일(월) 19시 30분, 국제학관 103호
- 합격자발표 : 2015년 11월 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부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명함판 사진 1매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 하나은행 906-910002-7660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mailto:gsp@khu.ac.kr)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분투에 '입학원서 재중' 게재 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2016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아간) 및 주말 개설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10. 19(월) ~ 11. 6(금)  
· 전형일 : 2015. 11.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mailto:khsb2670@khu.ac.kr))
- 특별전형 - 전형료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961-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http://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우대학원